

대야성 전투[大耶城 戰鬪] 나라를 되찾기 위한 백제인의 저항

642년



합천 대야성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대야성(大耶城) 전투는 642년에 오늘날 경상남도 합천 대야성 일대에서 벌어진 백제와 신라의 전투를 말한다. 의자왕이 즉위하면서 신라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였던 백제는 대야성을 함락함으로써 신라를 위기에 빠트렸다. 반면, 당시 신라의 권력자였던 김춘추는 대야성이 함락될 당시 성 안에 있던 자신의 딸과 사위를 모두 잃고 복수심에 불타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춘추는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고구려와 당을 오가는 외교전을 펼치게 되었고, 결국 김춘추의 대당(對唐) 외교가 성공함으로써 신라와 당은 군사동맹을 맺게 된다. 바야흐로 삼국의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대되는 순간이다.

2 백제와 신라의 동상이몽, 흔들리는 나제동맹

오랫동안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을 받아왔던 백제와 신라는 551년 합동 군사작전을 펼치며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성과 남평양을 비롯한 한강 유역 전역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이후 성왕(聖王, 재위: 523~554)이 이끄는 백제는 한강 하류 유역의 6개 군(郡)을 차지하였고, [관련사료](#) 진흥왕(眞興王, 재위: 540~576)이 이끄는 신라는 한강 상류 유역의 10개 군을 점령하였다. [관련사료](#) 백제와 신라가 그 강대했던 고구려를 마침내 한강 유역 북쪽으로 몰아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백제와 신라가 각각 한강 상·하류 지역을 장악하면서 양국의 합동 작전은 성공리에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두 나라는 향후의 군사작전을 놓고 의견이 갈리게 된다. 백제는 승세를 타고 고구려를 계속 압박하면서 북진하고자 하였지만, 신라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지금처럼 계속 북진하여왔자 기름진 평야를 끼고 있는 서해안 지역은 모두 백제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신라가 한강 상류 유역을 넘어 계속 진군한다면 백두대간을 끼고 진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전쟁을 통해 얻게 되는 영토 또한 대부분 험하고 척박한 산간지대뿐이었다. 반면 백제는 양국의 연합군이 계속 북진할수록 기름진 서해 연안 지역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즉 전투가 계속될수록 고생은 두 나라가 같이 하지만 노른자 땅은 백제 차지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신라는 이제 척박한 산간지대가 아닌 중국과 교통할 수 있는 서해안 지역이 탐이 났다. 혈기왕성했던 18세의 젊은 진흥왕은 국운을 건 도박을 시작한다.